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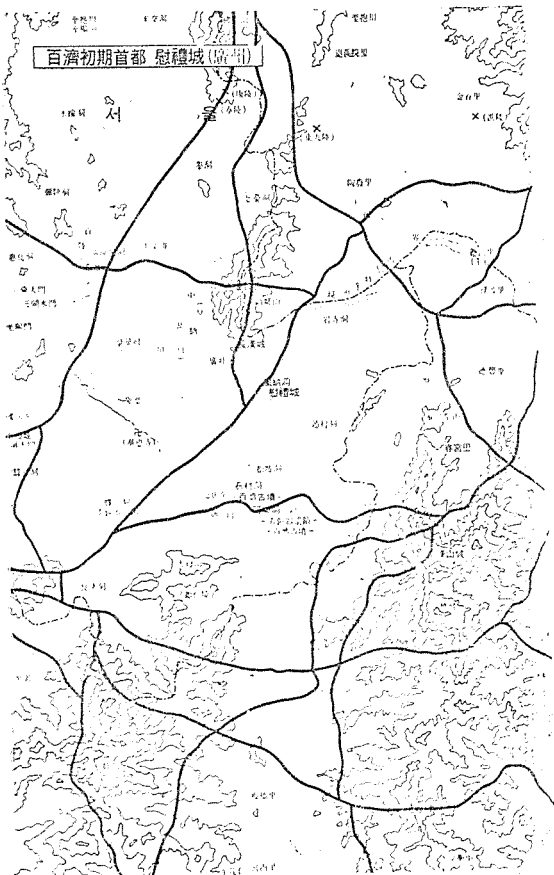
古文獻을 통한 百濟의 疆域

梁 泰 鎮
國土統一院司書官

一. 百濟의 建國

三國史記에 의하면 百濟는 北쪽 고구려系統의 流移民인 溫祚에 의하여 紀元前 十八년에 建國되었다고 한다.

半島 南쪽으로 流入한 이들은 滿州 廣州地方에 자리를 定하고 그해 七月에 地理條件이 좋은 이곳에 木柵을 세우고 滿洲, 錦洲地方에서 使用하였던 慰禮城의 名稱을 襲用하여 이 地方을 慰禮城이라 하였다.



그 境域이 北쪽은 熊川(今 公州)이요, 西쪽으로는 西海, 東便으로는 走壤까지 미쳤다.

走壤이란 어느 一定地域을 말하기 보다는 百濟地의 靺鞨地, 백제와 신라사이에 높이 솟아 自然境界를 이루고 있는 山과 山을 一括하여 總稱한 것으로 본다.¹⁾

溫祚王 十四年 七月 漢江 西地部에 位置한 漢山城을 築城하니 百濟最初의 城都이었다.

百濟는 漢江流域과 그 以南의 平野地帶를 掌握하여 生産力과 國勢의 活動에 있어서 보다 有利한 自然的 條件을 具備하고 있어 古代 征服國家로서의 體質을 確立하던 古爾王代以後로는 高句麗를 능히 對敵할 수 있는 힘을 保有할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

이같은 地域的인 우월성은 三國의 다른 두 나라인 高句麗와 新羅가 基層社會의 힘에 의한 成長에 重點을 둔 것과는 달리 大陸勢力과 日本列島內의 勢力等 國際的인 力關係를 利用하여 成長의 基本方向을 잡아 發展하게 된 重要한 原因이 되었다고 본다.

이 점은 古代國家로서의 發展에 重要한 肯定的인 役割을 한 것도 事實이지만 以後의 三國征服 戰爭遂行過程에서 劣勢에 놓이게 된 要因임도 否認할 수 없다. 百濟는 成立當初부터 周圍의 勢力과 對決하지 않으면 안될 運命에 처했는데 即 樂浪, 靺鞨, 馬韓, 新羅, 諸國 等이다.

二. 百濟初期의 疆域

百濟의 對外關係는 溫祚王 四年(紀元前 十五年)에 使臣을 樂浪에 派遣하여 修交하는데서 비롯되었다.

그 뒤 友好關係가 깨어져 馬首城과 瓶山柵築造에 따른 國境調停問題로 紛爭에 들어 갔고 紀元前 2년에는 樂浪이 侵入하여 慰禮城을 불태우는 일까지 생기게 되었다.

다음은 靺鞨과의 관계로 溫祚王 二十二년 부터 騎馬 戰鬪가 始作되어 國初부터 이들에 對한 境界를 게울리 할수가 없었다.

1) 三國史記 地理誌

三國史記 百濟本記 溫祚王 二十二年條, 四十年條에 의하면, 靺鞨은 百濟의 地境과 접해 있어 이들의 침입에 대비하는데 말갈인이 용감하고 多詐하니 마땅히 繕兵積穀하여 이들을 拒守하는 戒를 써야한다고 하였다.²⁾

靺鞨과의 衝突은 紀元前 16년부터 始作되어 仇首王(二一四—二三四)代까지는 守勢의 立場에 서게 되었고, 古爾王때(서기 二五八年)에 이르러서야 말갈 酉長 羅, 謁이 朝貢한 것으로 傳해지고 있다.

靺鞨의 侵入地域은 溫祚王때는 慰禮城 瓶山 柵 禿山 柵, 狗川 柵, 七重河, 斧峴, 述川城 等이었고 多婁王때에는 馬首山 橫岳(高木城) 瓶山 柵·牛谷城 等を 侵入하였다.

中谷城은 己婁王때에도 계속 侵攻당하였으며 肖古王때에 石門城·沙道城·述川이 侵入당하는가 하면, 仇首王때에는 赤峴城, 牛谷城 등이 노략질을 당하였다. 紀元前 十八年 十月 靺鞨이 侵入하므로 七重河에서 擊破하여 그 酋長 素牟를 사로잡아 馬韓王에게 보내고 나머지 모두 生埋葬해 버렸다. 七重河라 함은 오늘날의 臨津江의 古名이다.³⁾

靺鞨族은 威境道地方에 자리한 漁撈穴居族으로 주로 楸哥嶺地溝帶를 타고 내려와 百濟의 領域을 侵入하였다.

同王九年 王이 精兵 一千騎를 거느리고 斧峴의 東쪽에서 말갈을 만나 交戰한 끝에 大勝하였는데 溫祚王은 추가침지구대의 말갈을 逆襲하여 平康地方까지 깊숙이 進出하였다.

同王 二十二年 九月 石頭城(今 江原道 安峽 또는 利川地方)과 高木城을 쌓아 말갈의 侵入에 對備하였다. 參考로 百濟의 靺鞨侵略狀況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⁴⁾

溫祚王 四十年(西紀 二十二年)~己婁王 三十二年(西紀 百八年)까지 八十六年間 七次.

近肖古王 四十五年(西紀 二百十年)~仇首王 十六年(西紀 二百二十九年)까지 十九年間 四次.

辰斯王 三年(西紀 三百八十七年)~同王 七年(西紀 三百九十一年)까지 四年間, 二次

東城王(西紀 四百八十年)~武寧王 七年(西紀 五百七年)까지 二十七年間 三次,

多婁王 二十九年 二月에도 東部에 命하여 牛谷城을 築城하여 말갈의 침입에 대비하였는데 百濟東部の 牛谷城은 오늘날의 春川地方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음으로 百濟와 馬韓과의 關係를 살펴보면 三國史記 新羅本記 一에 依據하건대 紀元前 十九年, 馬韓王의 國喪이 있었고 이듬해 溫祚의 即位로 보아 馬韓王의 죽음에 溫祚 即位와 어떤 관계가 있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낳게 하고 百濟本記 溫祚王때의 記錄으로보면 王이 神鹿을 馬韓에 보냈던가, 혹은 使者를 보내어 遷都를 알

렸든지, 말갈의 酉長 素牟를 포로로하여 馬韓에 보냈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初期에 百濟가 馬韓王의 영향력下에 있었음을 뜻하는 것이라 보겠다.

그러면서도 百濟는 漸次로 馬韓의 땅을 潛食하게 되었는데 溫祚王 二十四年 熊川에 柵을 세우니 이곳은 馬韓의 王都와 不過 百二十里程度의 근 거리로서 馬韓王의 甚한 反撥을 사게 되었다. 即 馬韓王이 使者를 보내어 이르되 王이 처음 이곳으로 왔을 때에는 밭 불이 곳이 없었는데, 내가 東北의 땅 百里를 割讓하였거늘 이제 와서 우리의 疆域을 침범하니 義理上 그럴 수가 있느냐하니 溫祚가 부끄러워 그 柵을 헐어버렸다고 한다.⁵⁾ 馬韓의 都邑은 오늘날 全羅北道 益山으로 알려졌다.

溫祚王 二十六年(서기 七년) 七月, 馬韓의 國政이 홀 어지매 同年 十月에 王이 出師하여 馬韓을 併合하였다. <溫祚王 二十六年 秋七月 王曰 馬韓漸弱 上下離心 其勢不能久……冬十月 王出師 陽言田獵 遂襲馬韓 遂并其國邑>⁶⁾ 그러나 이때 圓山과 錦峴 二城은 함락되지 않았는데 圓山은 오늘날의 完山 即 全州郡 礪山地方으로 보며 錦峴은 忠淸南道 錦山으로 본다.

溫祚王 二七七年 다시 圓山과 錦峴 二城을 빼앗고 그곳 백성들을 漢山 북쪽에 옮기니 馬韓은 드디어 亡하고 말았다. (溫祚王 二七年 夏四月 二城降·移其民於 漢山之北 馬韓遂滅)

이제 百濟는 半島에 移口한지 十四年만에 그 疆域이 北은 黃海道 新溪에서 金川地方을 限으로 하고 東北은 江原道 伊川에서 京畿道 抱川 加平 楊平 麗州 安城 等 平野地帶를 포용하고 南은 忠淸北道 天安, 鳥致院, 大田, 永同과 全羅北道 錦山, 長水, 全羅南道 鎭津 光陽以西의 西海岸地帶 全城으로 擴大되었다. 溫祚는 三四年 西紀 十六年 十月 馬韓의 舊將 周勒이 牛谷城에 雄據하여 叛하매 王이 親히 軍士 五千을 거느리고 討伐하여 後患을 없게 하였다.

이 牛谷城은 대체로 오늘날의 晉州地域으로 보며, 周勒의 抵抗地 一帶를 歷史上 西部 慶尙南道 八邑 地域이 아닌가 推察한다.

百濟는 그 疆域을 陸地뿐만 아니라 海岸의 島嶼에 까지 擴張하였는데 西南海上의 크고 작은 섬들이 綺羅星 같이 散在한 領土를 隋書와 括地志는 다음과 같이 記述하고 있다.

<國西南, 人島居者十五所 皆有城邑>⁷⁾ <百濟國 西南

2) 李萬烈 韓國史大系 三國編 卷 三 珍社 1973. p.150.

3) 東國輿地勝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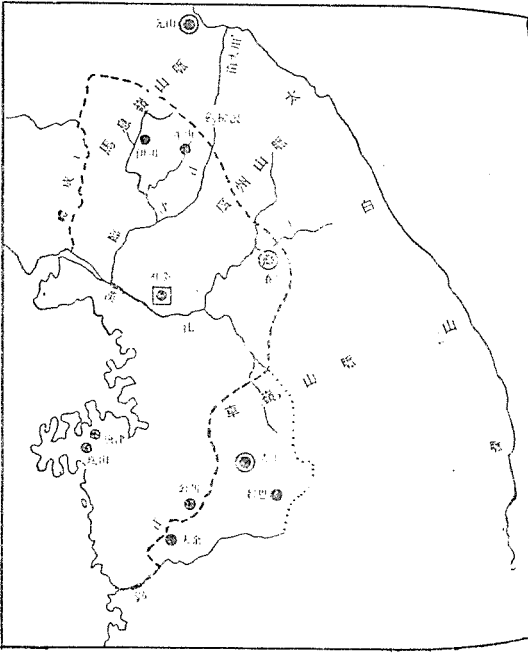
4) 文定昌 百濟史 三國史 第一卷 柏文堂 1975. p. 32.

5) 前掲書 p.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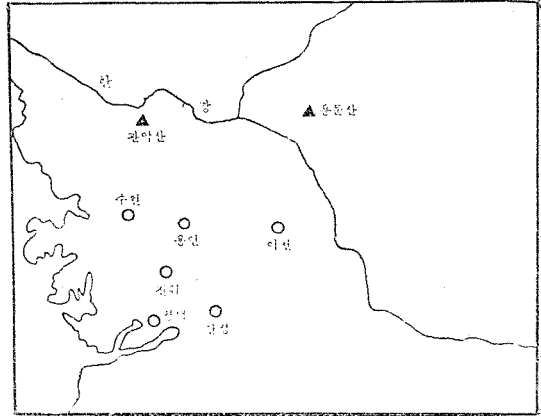
6) 三國史記 百濟本記 溫祚王 二十六年條

7) 隋書 百濟傳

立國初의 疆域圖



眞興大王이 襲取한 百濟 東北鄙 六郡 地圖



瀚海中 有大島 十五所 皆邑落 有人居 屬百濟⁸⁾ 海岸上의 代表的인 섬 南海島의 點領을 비롯하여 晉州地域을 포함하고 그 東쪽 境界가 咸安加耶와 隣接하게 되었다.

同王 36年 7月 湯井城을 築設하고 大豆城의 民戶를 나누어 居住시켰는데 湯井郡은 오늘날의 溫陽地方이다.⁹⁾ 多婁王 36年 (서기 63年) 10月, 오늘날 忠淸道 淸州地方인 娘子谷城까지 進軍하여 그곳을 占領하고 난 후 新羅에 使者를 보내 會同하기를 願했으나 脫解王이 듣지 않았다.

其後로 百濟와 新羅가 오늘의 忠淸北道 慶尙北道 境界에서 死鬪를 벌이기 始作하였는데 同王 37年 兵을 보내 新羅의 蛙山城(今 俗離山 週邊)을 공격하였으나 이기지 못하고 拘壤城(今 沃川地方)으로 後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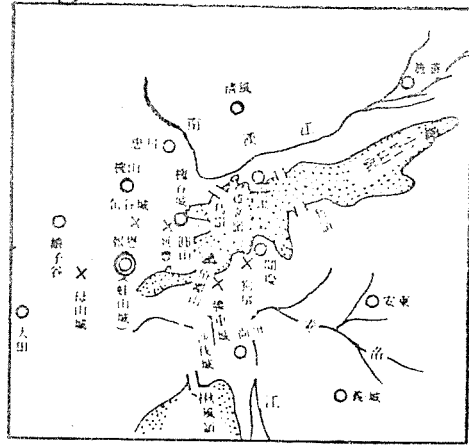
이때 新羅가 騎兵 2千을 發하여 百濟軍을 追跡하였던바 오히려 逆襲을 받아 敗走하였다.

同王 39年 蛙山城을 攻取하여 兵二百을 駐屯시켜 守護하고 있었으나 이어 新羅가 蛙山城을 奪還하였다.

同王 48年 다시 蛙山城을 攻取 奪還하는 등 蛙山城이 오늘날의 報恩郡 俗離面과 慶北 尙州郡 化北面이 隣接된 곳으로 이 험준한 俗離山을 넘으면 그 東쪽이 尙州로서 그 隣近이 擴活한 平野地帶인 바, 만일 百濟가 이 俗離山을 넘게 되면 新羅의 國境防備가 至難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兩國은 死鬪를 벌였는데 44년 동안에 무려 7次의 攻防戰을 벌였으나, 끝끝내 百濟는 蛙山城을完

濟·羅兩國軍의 激戰地



全히 占領하지 못하고 따라서 俗離山을 넘지 못하였다.¹⁰⁾

己婁王 四十五年(서기 121年) 王은 高句麗·太祖太王과 合勢하여 漢의 玄菟城을 포위 공략했으나 大敗하고 이어서 同王 四十九年 肖古王 二十二年 (서기 167年) 七月 新羅西邊의 二城을 攻破하여 住民男女 千名을 사로 잡으며 新羅 아달라왕이 極怒하여 百濟를 侵略하고 여러 城을 일제히 공격하였으며 이 밖에 騎兵 八千을 따로 이끌고 漢江上流로부터 侵入함에 하는 수 없이 사로 잡은 住民 千名을 되돌려 보냈다.

三. 百濟의 疆盛期

近肖古王 二十四年 九月 高句麗 故國原왕이 兵 二萬

8) 括地誌

9) 東國輿地勝覽

10) 文 定昌 百濟史 三國史 第一卷 柏文堂 1975. p. 123

을 이끌고 雉壤에 駐屯하고 兵士들을 풀어 百濟 民家를 掠奪하였는데 雉壤은 오늘날의 黃海道 白川地方으로 百濟國의 北境線인 禮城江과는 二十里밖에 되지 않는 近距離이다.

近肖古王은 太子 近仇首에게 兵을 주어 高句麗軍을 攻擊하여 軍士 五千名을 사로 잡고 乘勝長驅하여 水谷(今 新溪)에서 西北쪽인 谷山까지 攻取하였다. 新溪와 谷山은 不過 四十里로 谷山에 들어 서면 平壤으로 直行할 수 있는 水路를 얻게 된다.

百濟는 平壤과 不過 三百里 거리인 要險인 雉壤을 占領하여 北上을 圖謀하게 되었고 東은 劍閣의 險에 雄據하여 水師로서 平壤城을 내리칠 佈세를 갖추게 되었다.

雉壤敗戰後 三年만에 高句麗軍이 大舉 出動하여 百濟軍을 습격하려 하며 近肖古王이 溟水上에 伏兵하였다가 不意에 공격을 加하여 高句麗軍이 敗走하였다. <近肖古王 二十六年 高句麗與兵來 王聞之 伏兵於 溟河上 俟其至 急擊之 高句麗 兵敗北.>¹¹⁾

同王 二十六年 十月 戰備를 갖추어 太子 近仇首와 함께 精兵 三萬을 이끌고 水陸 兩面으로 平壤城에 突入하였다. <冬 王與太子師 精兵三萬 侵高句麗攻平壤城 麗王斯由力戰拒之, 中流矢死.>¹²⁾ 이 戰鬪의 結果로 高句麗는 그 國都를 北海洲 韓縣으로 옮기고, 百濟는 漢山으로 都邑을 옮겼다고 三國史記 近肖古王 二十六年條에 記錄하고 있다. <王移軍退, 移都漢山>이 漢山을 丹齊 申采浩氏는 朝鮮上古史에서 오늘날의 載寧이라고 하기도 한다.¹³⁾

百濟가 高句麗의 領土인 谷山地方을 占領한 것은 百濟史上 北方 境界線이 가장 靑창된 時機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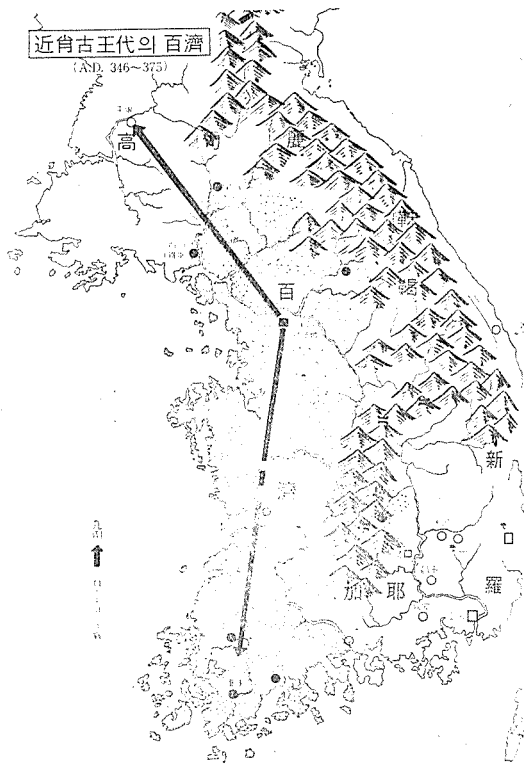
이 때의 境界線은 東은 威鏡南道와 인접한 谷山地方을 限으로 하고 北은 黃海道 遂安郡, 瑞興郡, 鳳山郡, 黃州郡을 限으로 하여 西쪽으로는 載寧江과 大同江이 合流하는 黃州郡 三田面 절도리까지 뻗었다.¹⁴⁾

그러나 同王 二十八年에 禿山城主가 兵三千을 거느리고 新羅로 달아나는가 하면 同王 三十年 七月에 高句麗軍이 水谷城에 쳐들어와 그 城을 빼앗았는데 王이 再奪還을 試圖했으나 失敗함에 水谷城을 入手한지 五年만에 高구려軍에게 빼앗겼다.

그 후로 國境의 城을 靑木領(今 開城 松岳山)으로부터 거슬러 올라와 八神城까지 이르렀으며, 西쪽으로 접어들어 바다에 이르렀다. <辰斯王 二年 春 發國內十五才已上 設關防自 靑木領北距八坤城 西地於海>¹⁵⁾

四. 百濟의 衰殘

辰斯王이 五百餘里에 達하는 長城을 쌓아 防禦를 굳



게하고 있을 때 高句麗에서는 當代의 英主 廣開土大王이 百濟를 침공하여 阿里수(漢江)를 넘어 數十城을 빼앗았다.

이때부터 百濟의 疆域은 漸次로 縮小될 運命을 지니게 되었다. 더욱이 百濟의 北方要扼인 關彌城(今 江華島)이 함락되어 더욱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蓋鹵王 二十一年(서기 45년) 九月 長壽王이 兵이 끌고 南下하여 먼저 北城을 공격하고 七日만에 奪取士七萬을 하고는 이어 南城을 공격하니 高句麗 장수 桀婁는 辰斯王을 사로잡아 阿且城으로 끌고가 찢러 죽였다고 한다.

그 뒤 장수왕은 忠州, 槐山, 鎮川, 陰城, 永同까지를 占領하여 버렸다. 이러한 受難을 겪어 오던 百濟가 都邑을 瓮津으로 옮기고 점차로 國勢를 回復하여 한 때는 羅濟同盟을 맺고 北進政策을 펴 나가 高句麗에게 빼앗겼던 領土를 收復하였으나 新羅의 背信으로 百濟의 古土이던 漢江流域을 新羅가 先占하며 羅濟同盟의 誼는 깨지고 仇怨의 關係로 變하여 新羅와 寸土를 놓고 角逐戰을 벌이는 사이가 되었다. <13面に 繼續>

11) 三國史記 百濟本記 近肖古王 二十六年 條

12) 同上

13) 申采浩 朝鮮上古史 鍾路書院 p. 180

14) 文定昌 百濟史 三國史 第一卷 柏文堂 1975. p. 181

15) 三國史記 百濟本記 辰斯王 二年條

〈그림 II〉 再分類 所要經費 見積 比較

Period Covered	Professional Librarian	Library Clerk	Student Workers	Xerox, Cards Book Pockets Spine Labels	Total Cost	Volumes Reclassified	Cost Per Volume
Oct. 1966-June 1967	\$ 400		\$ 1,852.50	\$ 266.33	\$ 2,518.83	3,288	\$ 0.76606
July 1967-June 1968	2,520	\$ 2,400	1,939.30	815.27	7,674.57	10,065	0.76250
July 1968-June 1969	2,700	2,630	1,324.30	1,142.02	10,796.32	14,099	0.76575
July 1969-June 1970	4,100	3,072	7,211.80	1,332.86	15,716.66	16,155	0.95548
July 1970-Dec. 1970	2,175	1,614	3,249.45	248.11	7,286.56	3,003	2.37890
Total	\$ 11,895	\$ 9,716	\$ 18,577.35	\$ 3,804.59	\$ 43,992.91	16,970	\$ 0.936629*
Percentage of Total Cost	28%	22%	43%	7%	100%		

* Average cost, not total

며, 監督要員의 增加는 除外하고라도 學生補助員들의 근무시간 增加에 對한 相對的인 人件費 上昇이 그 重要한 原因이 이라고 추측된다. 最終年度의 한 冊에 對한 過度한 經費는 이 期間동안 大部分의 作業을 問題點解決에 集中하였고, 소위 “雜務를 處理하는데”에 그 原因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 冊당 \$ 0.93662의 最終經費는 圖書館藏書의 再分類에 所要되는 額數로서 相當한 正確性을 지닌다고 認定되었다. 그러나 Arkansas州立大學의 再分類計劃은 實務者들이 그들의 作業과 比較할 때 보다 細部的인

基準을 제공하여주며, 이 計劃에서 要求되는 또 다른 經費에 關하여 다음과 같은 事實을 提示한다. 첫째 定期刊行物은 分類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그림] II에 表記된 冊當 費用은 題目當 費用과 커다란 差異가 없다는 點이며, 둘째 學生補助員으로 新入生을 採用하려는 意圖에도 不拘하고 거의 大部分의 學生들이 단지 한 학기나 두학기정도로 再分類計劃에 參加하였으므로 또 다시 새로운 學生補助員을 採用하여 훈련시키는데 막대한 時間과 노력이 所要되었다는 點이다.

〈29面에서 繼續〉

義慈王 二年 百濟는 新羅의 四十餘城을 攻取하여 잃었던 領土를 收復하여 그 疆域을 西部 慶南 八邑과 연결시키고 한편으로는 東쪽으로 오늘날의 忠淸北道 地城인 沃川 永同 秋風領을 넘어 金泉 高寧까지를 占領하기도 하였다.

韓半島內에서의 高句麗, 신라, 백제 三國間의 각축전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도 高句麗 北方에서는 唐의 侵略企圖가 계속 가중되어 음에 高句麗의 연개소문은 三國이 民族相殘戰을 止揚하고 相互 團結하여 唐과 對決하자고 提議를 하였으나 新羅가 이를 拒絕하자 高句麗는 百濟와 함께 羅唐과 對決하기로 하였다.

이리하여 義慈王 三年 正月 高句麗와 協議하여 新羅의 入唐路를 막고자 黨項城(仁川地方)을 공격하고 계속하여 신라를 압박하니 新羅는 唐에 이 같은 事情을 呼訴

하여 百濟 高句麗를 쳐 부셔 달라고 하였다.

이에 唐은 의자왕 二十年 七月上旬 山東半島 咸陽을 出發하여 一路 韓半島의 西海 德積島에 當到하였고 新羅軍은 同年 五月 二十六日 慶州를 出發하여 二十三日 이 걸려 그해 六月 二十八日, 南川(今 利川)에 到着하였다.

新羅太子 金法敏은 六月 二十一日 軍艦百隻을 거느리고 덕적도에 가서 唐의 蘇定方 一行의 來着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듯 羅唐연합군은 百濟침공을 착착 進行하여 의자왕 二十年 三月에 마침내는 異民族인 唐軍을 끌어 들여 同年 七月 十八日 羅唐연합군에 항복하니¹⁶⁾ 백제 三一王 六七八年의 社稷이 끝나고 말았다.

16) 國史大事典 李弘植 編著 知文閣 1968. p. 566.